

대한석유협회 20주년과 한국석유산업의 미래



西村 功 (니시무라 이사오)

〈 전 코스모종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머리말

세계 원유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WTI가격은 98년 12월 10.73\$로 저점을 찍은 후 상승세로 돌아서 2000년 2월에는 최고치가 3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그 후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걸프전쟁 이후 최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석유가격 급등이 주식시세나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OPEC에 증산을 요청하는 한편, 자국의 SPR(전략석유비축)의 긴급 방출을 발표하는 등,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제2차석유위기의 와중이던 1980년 9월, 석유업계의 난국타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20주년을 맞는다. 그 사이 한국은 OECD에 가입하는 등 순조로운 성장을 이루어왔다. 97년에 일어난 아시아 외환위기로 다음 해의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민관이 하나가 되어 난관을 극복했다. 그러나, 지금 또 새로운 문제로 '원유가격 불안정'이 우려되기 시작하는 등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협회 창립 후 20주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21세기를 향한 한국석유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석유산업의 역사와 환경 변화

1962년에 박정희 정권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족시킨 이래 34년 후인 1996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OECD에 가입해 염원이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2차대전후 문자 그대로 '無에서 출발' 했던 한국은 그 경이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NIEs의 성공스토리로서 하버드대학 Ezra E. Vogel 교수에 의한 명저 The Four Little Dragons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않았다. 국부가 궁핍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적은 가운데 자립경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출지향형 산업진흥정책 표방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에너지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 5개년계획 책정 당초부터 설비투자를 비롯해서 소비자 판매가격 설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한 엄격한 통제운영관리를 실시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이었던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한국기업에 대한 투·융자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국영 석유정제회사 '유공'을 발족시키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위정자는 일찍이 에너지산업이 가진 기초산업체 부문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당초 전력과 석유정제공장의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계획했다. 그 다음 5개년계획에서도 에너지는 역시 가장 중요한 테마였다.

그렇지만, 시대는 변화한다. 동서냉전구조의 종식은 세계 경제구조를 한 순간에 바꿔버렸다. 그와 아울러, 규제완화가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국가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transnational한 경제활동시스템이 정보통신기술의 더 한층의 발달과 함께 급성장했다. 이미 경제활동은 한 국가만의 단독 행동이 불가능한 Global System으로 급격히 변모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통화위기를 들 수 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를 시작으로 통화위기가 발생했다. 위기는 순식간에 ASEAN국가로 번졌고 10월에는 대만, 홍콩, 11월에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IMF를 비롯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긴급용자(conditionality)가 효과를 거두어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재벌의 과도한 차입금에 의한 기업지배경쟁이라고 규정짓고 재벌해체(Big deal)를 단행했다. 그 때문에, 한국 산업계 지도도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석유산업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해졌다. 정부는 그때까지 규제해 온 외자도입을 완화해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전환했다. 금융문제에도 메스를 가해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아시아 국가가 금융면의 취약성을 노정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은 당분간 냉각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측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각국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GDP성장률은 98년에 마이너스 6.7%(한국은행 경제통계)로 떨어졌지만, IMF의 협조와 국민의 현명한 지구 노력에 의해 다음 해에는 플러스 10.7%(동 자료, 잠정추정치)로 크게 회복했다. 외환보유액도 위기발생시점에는 70억\$까지 떨어졌지만, 금년 9월말 현재 925억3천만\$(한국은행 발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강한 회복세를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국제 석유문제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구조변화와 함께, OPEC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석유수급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 OPEC은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를 통해 메이저로부터 가격결정권을 쟁취했지만, 그 후 80년대에 생긴 원유선물시장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점차 가격형성력을 가지기에 이른다. 그리고, 88년부터는 원유가격의 시장연동이 정착, 이에 따라 OPEC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만 생산조정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선물시장에 금융 투기적 움직임이 강화되어 가격변동은 보다 극단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기를 향한 석유산업의 모습을 모색하려고 하는 때, 경제의 글로벌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문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소비 석유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와 같은 석유산업을 둘러싼 상황의 현저한 변화를 인식하면서 에너지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대한석유협회는 제2차석유위기의 외중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하는 coordiantor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발족, 어려운 환경 변화 속에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의 입안, 규제완화나 세계개정문제에 대한 노력, 소비자가격설정에 관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언, 환경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approach, 석유문제에 관한 홍보활동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노력을 경주해왔다. 작금 에너지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협회도 또한 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력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에너지산업의 당면 과제

21세기를 향해 석유산업이 생각해야 하는 과제는 여러 부문에 걸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 '에너지가격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문제' 이고 둘째 '지구환경과 에너지 best mix 문제' 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 석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1차에너지 공급중 석유의존도는 99년도 실적으로 53.7%로 총에너지공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의존도도 극히 높다(100%). 그리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원유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수입비율은 99년 72.3%)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원유공급의 긴급 두절이나 자원 고갈에 대한 준비가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은 기술진보에 따른 대체자원이 확대되어 원유 공급두절의 우려가 줄어들고 냉전구조 붕괴에 따라 자원 Nationalism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급성장하는 아시아의 왕성한 석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전체가 수급문제를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유·석유제품의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된 합리적인 가격설정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 한국 모두 1, 2차 석유위기를 경험한 후, 에너지 안정공급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에너지 절약기술 향상과 함께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공급원의 다원화를 진전시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전술했던 대로 변함없이 석유의존도는 높고 게다가 중동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소비, 그 중에서도 석유 의존도와 중동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OECD 회원국이자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은 상호 협력해서 에너지안정공급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개도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중동산유국과의 '산소(産消)대화'를 원활히 추진해 석유가격의 장기안정에 노력해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두번째 문제는 우선 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방지 회의에서 2008~2012년을 목표연도로 설

정한 온실가스 저감(1990년 수준에 비해 5% 삭감)에 관해 구체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90년대 들어 지구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경제성장과 함께 석유 소비가 CO₂를 대량으로 배출함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졌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공급(Energy security), 환경보전(Environmental protection), 경제성장(Economic development)과 같은 trade off 관계에 있는 이들 3가지 사항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는가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최근 다국간 협력에 의한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추진이 시작되고 있다. 즉, 국가의 틀을 넘는 프로젝트팀의 결성인데,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이 협력해서 동아시아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다국간 협력의 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구환경문제가 일개 국가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새로운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이 주목된다.

4. 끝말

이상 논했던 대로 에너지문제는 환경변화와 함께 새로운 전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석유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인한 기업체질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 석유산업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통합과 함께 석유·전력·가스 등 이업종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함으로써 종합에너지산업으로의 탈피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메이저는 Exxon과 Mobil이, BP와 Amoco가 각각 합병을 발표하는 등 Mega Merger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산업은 이번 외환위기를 계기로 빅딜을 통해 5개사중 3개사가 새로운 외자도입과 경영개선을 해야만 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주어진 명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좋은지 석유산업에 요청되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